제4강 언어와 존재의 그늘에서Ⅱ

(1교시)

◎道可道 非常道; 名可名, 非常名에 대한 왕필의 해석

- 말할 수 있는 도와 이름지을 수 있는 이름은 '구체적 사태'와 '구체적 사물'을 가리키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. 그러므로 "말할 수 없다"고 또 "이름지을 수 없다"고 한 것이다. (可道之道(가도지도), 可名之名(가명지명), 指事造形(지사조형), 非其常也(비기상야), 不可名也(불가명야))
→ 성인의 도는 어떻게 체득될 것인가의 문제가 향방이다.

- 성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주 이른 시기에 등장
→ 중국적 수사의 전형: 其人不傳(기인부전)의 두 가지 의미
1)도를 전할 만한 사람이 못되면 전하지 말아라.
2)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른다. 그러니 맘놓고 이야기해라.

- 선진 시대 『장자』 「천도」(天道)에 나오는 환공과 윤편의 일화: 윤편은 거기에서 바퀴깎는 방법을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에 비유하여 환공이 읽는 고인(古人)의 책은 '옛 사람들의 찌꺼기'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.
→ 성인이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는 언어를 통해서는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.

◎ 바그너의 경우, 과연 성인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왕필 이전에 전개된 세 가지 입장에 대해 언급.

- 첫째는, 근본주의적 입장: 경전 속에 들어있는 성인의 뜻,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.
- 둘째는, 지칭적 입장: 경전에서는 언어가 지닌 한계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장치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전에서 사용되는 말과 글, 상은 지칭적 특질을 가진다.
- 셋째는, 시의적(時宜的) 입장: '시대와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전 독해(a reading of the classics that is adapted to the requirements of the time and circumstances)'라고 규정하는 것이다.

→ 첫째, 둘째가 중요하다.

⇒ ‘君不盡言 言不盡意’

※ {장자} 외물:

(해석)

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 그물을 잊어야 한다.

올무(올가미)라고 하는 것은 토끼를 잡는 데 목적이 있다. 그러므로 토끼를 잡았으면 그 올무를 잊어야 한다.

마찬가지로 말은 뜻을 전하는 것이다. 따라서 그 뜻을 얻었으면 그 언어에는 매이지 않아야 한다.

→ 뜻을 알려면 말을 봐야하고 말을 알려면 글자를 봐야함. 그러나 그 뜻을 얻은 후에는 글자에 집착하지 않는다.

⇒ 기본적으로 말의 역할을 긍정.

⇒ 경전의 세계라는 것은 분명히 언어로 되어있고 성인의 뜻을 담지만 아무나 그 뜻을 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(긍정과 동시에 부정. 왕필을 천재라 일컫는 이유중 하나이다.)

(2교시)

◎ 대상언어-장자 언어관의 양 측면

- 장자의 대상 언어적 요소 긍정

1) 소리, 음성 등의 언어적 매개체 긍정

2) 의미나 생각 또는 내용의 긍정,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언어적 구별이 가능해지고 소리는 의미를 지닌 부호가 됨

3) 규칙의 긍정: “오늘 월나라를 떠나 어제 거기에 도착했다”와 같은 논의에 대한 부정.

- 언어의 세계는 상대적 언어의 세계이며, 절대적 언어란 없다. 따라서 상대적 구별은 절대적 구별이 아니므로 만물은 하나이다. (논리적 모순관계의 회피)

◎ 노장의 비표상주의적 언어관으로의 해석

- 노장의 도에 대한 언명을 메타 언어 혹은 상위 언어로 보는 것은 노장 자체와 모순: 왜 노자는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통찰력 있는 말을 계속하는가? (노자의 역설)

- 표상주의적 해결의 문제점: 이름과 말은 그것들이 나타내는 사물과 사태의 표상이 본질, 따라서 언어적 구별은 존재론적 구별을 수반하며, 도의 전일적 체험은 언어적 분별에 의해 깨진다:

이것의 논리적 귀결은 비트겐슈타인의 "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된다."이다. 여기서는 노장의 논리 자체가 모순이 된다.

- 비표상주의적 가능성, 일정한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 언어는 필요 없다. "도는 오직 비표상적 언어사용 가운데서만 드러날 수 있다. 그리고 올바른 언어사용은 자연적 삶과 분리될 수 없다... 도가적 언어사용은 그 자체가 그들 삶의 형태의 일부를 이룬다. 그렇기 때문에 도가적 삶의 형태가 소멸되어 갈수록 그들이 말하는 도의 의미 역시 흐릿해진다."(**이영철**, 67쪽)

◎ 상상력과 도덕적 실천

- 인간은 언어적 존재이다. 노장이 도의 언어적 구별, 차별과 구분이라는 언어의 본질적 원리를 부정하는 이유는 "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이기적 욕망의 극대화"에 대한 비판에 있다.
- 노장은 이런 점에서 일종의 전체론적이며, 유기체적인 사유 양식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.
- 노장의 '도를 도라 말하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'라는 언급은 인식론적, 언어철학적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, "구체적인 내 행위와 삶 속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로 보기를 권유하는, 그런 도덕적 실천적 함축을 권하고 있다"(**김영건**, 88쪽)

⇒ 노장에서 말하는 언어관은 그것이 말하는 실천적, 도덕적, 정치적 혹은 본래 맥락 속에서 이해 되어야만 한다.

◎ 세 가지 불경: 『서유기』에서

- 인도에 대해 있던 본래의 불경
- 현장에 가져오다가 바람에 날려 자연 속으로 흩어진 불경
- 비 맞은 불경: 잘 떼어 볼 수 없는 불경

⇒ '인간 사회에서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'를 연구하는 언어철학은 매우 애매모호하다. 계륵과 같은 것.

cf. 동양의 以心傳心 사상: 폐쇄성을 기본으로 함.

⇒ 서양 철학자들이 노장사상을 엄밀히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전한 합리성(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)을 세우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.